



[경제종합] 이재용 회장 정중동 행보 뉴삼성 윤곽 기대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44.48 (+1.58)	코스닥	731.92 (-5.62)
금리 (미국 3년)	3.787 (-0.017)	환율 (원/달러)	1340.30 (+0.10) (18일)

# 비대면 경제 확산... 전 산업 400兆 미래성장 버스 탑승

## 신기술 **辛**테크

〈上〉 메타버스, 현 주소는

2025년 시장 규모 399조 글로벌 산업 기술 대부분 생태계 구축 등 투자 확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통해 삼성전자도 산업육성 동참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 경험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된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개발하겠다.” (한중희 삼성 전자 부회장)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함께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확산되기 시작한다. 즉, 5G 상용화

와 함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국내외 IT, 통신, 게임 등 기술 관련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찌감치 메타버스 사업을 접목하기 시작한다. 자체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선점하는 등 기술 개발 및 투자를 확대에 속력을 내고 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 ◆ 메타버스 기술 확장 본격화

딜로이트는 가상자산, AR·VR·MR, 네트워크, 컴퓨팅 인프라를 포괄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2021년 1220억 달러(173조원) 규모에서 2025년 2448억~3928억 달러(341조~5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도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 매출 기준 2800억 달러(약 39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삼성전자, SK,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군들이 메타버스 관련 기술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했다. 해당 얼라이언스에는 현대차, SK텔레콤, 우리



논술시험 마친 학생들

202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논술시험이 치러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교사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퇴실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달 중 48개국에 이프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별 대표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즈가 서비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전세계 누적 이용자 3억200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社告

‘2022 뉴테크놀로지포럼’

###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초거대 AI의 미래 전략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최대 이슈는 초거대 AI 개발과 가상인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과 AI 언어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 비서, 쇼핑 등에도 초거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가상융합) 형태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범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이처럼 AI와 메타버스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메타버스 및 AI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강 연 : 김정대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김영준 SKT A.(에이닷)대화 담당, 이근복 마이크로소프트 시협력팀 상무, 운영진 네이버 AI사업개발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부설연구소 AI연구부장, 최하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메타버스 학회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2022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화물차에 학교·지하철까지... 노동계 ‘줄파업’

화물연대, 24일부터 총파업 운송차질에 물류대란 재현 우려 학교 25일, 지하철 30일 돌입

노동계가 오는 24일 화물연대에 이어 25일 학교, 30일 지하철 등 줄줄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간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과 운임 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현장 내 인력은 부족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또다시, 물류대란 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노사 간 협력을 강조하며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은 오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우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오는 24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후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

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인 셈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이건 등으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

입하면 운송차질에 따른 물류대란이 재현될 것이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때 시멘트·레미콘·자동차·철강·유동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곳곳에 물류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다수가 학교 급식·돌봄 업무 종사자들로 정규직과의 임

금 격차가 크며 수당 등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서면 전국 학교들이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총파업 당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중단돼 대체식이 제공됐다.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2면에 계속>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21일 의원총회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의 ▲ 이재명 “尹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 납득할 수 없어” /사진 뉴시스

▲ 홍준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울인’ ▲ 野 이원목 “국민 66% 금투세 유예 지지... 상인적 현실감각 필요”



▲ 권성동, ‘尹퇴진’ 집회간 野의원들에게 “정치 무당” “죽음의 환전상” 맹공 /사진 뉴시스 ▲ 與 “민주, 이재명 방탄만 고집한다면 ‘개딸’과 다를 것 없어”